

6 시편주석서를 통해 본 성경번역자로서의 깔뱅¹⁾

번역 및 논찬 최윤배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1. 이 글의 과제 및 연구의도

‘성경번역자로서의 깔뱅’,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연구주제였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것이 있기는 한가? 깔뱅성경이란 것이 없지 않은가! 깔뱅 저작의 56번은 “깔뱅의 프랑스어 성경”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리차드 위버 (Richard Weaver)가 1994년 출간한 「존 깔뱅의 성경」에서도 단지 깔뱅 주석서들에서 깔뱅이 부분적으로 번역한 성경단락들을 모아 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나 작업과정 등을 고려할 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출발점을 반대로 바꾸어 본다. 어떻게 하면 이토록 중요한 주제를 이번 강연에서 잘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깔뱅이 성경을 번역

1. 본 글은 제9차 세계칼빈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피터 오피츠(Peter Opitz)가 쓴 “Calvin as Translator of the Psalms”을 번역 및 논찬하였다.

한 것은 극히 적은 분량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나는 이 주제를 어떤 한 특정한 관점에서 제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일단 깔뱅의 프랑스어 번역과 깔뱅의 헬라어 신약성경 번역을 재껴 놓기로 했다. 이 두 번역이 재미있는 연구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깔뱅의 시편 주석서에 있는 히브리어 시편에 대한 깔뱅의 번역에 나의 관심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그다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 이 시편 주석서는 다른 구약의 주석서와는 달리 깔뱅이 심혈을 기울여 번역하였다는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써 분명해지는 것은 본 연구가 목표나 결과 혹은 ‘번역문’ 등에 집중한다기보다 번역의 작업과정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시편의 번역자로서의 깔뱅”, 이 주제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나는 우선 깔뱅이 어떠한 상황에서 시편을 번역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깔뱅의 성경번역작업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시편 번역자로서의 깔뱅 : 그 역사적 상황

위버(Weaver)가 제공하고 있는 시편에 대한 깔뱅의 라틴어 번역을 보면, 깔뱅이 천부적인 라틴어 실력을 타고났다는 인상을 받지 못한다. 그 책을 읽노라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어떤 의미인지 겨우 알아낼 수 있는 난해한 문장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것이 분명 깔뱅의 시편 번역물이 맞다는 점,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번역물이 결코 ‘깔뱅의 시편 번역’으로써 편집되거나 출간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위버가 편집한 「존 깔뱅의 성경」처럼 이 번역물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경본문에 새롭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종교개혁의 생명력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성경이 각각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작업이 확산된 것뿐만 아니라 원어성경이 당시의 유럽의 학문적 언어였던 라틴어로 개정되는 작업, 그 자체도 종교개혁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은 당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전통적인 불가타 본문이 많은 바람들을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는 아주 복잡한 연구과정을 통해 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편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수백 년 동안 시편을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면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던 것은 종교개혁 안에서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554년 깔뱅이 시편 번역에 대한 강의를 했고, 여기서 많은 것들이 형성되고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세 가지 라인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각각의 라인은 깔뱅의 시편 번역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다.

1) 취리히 : 츠빙글리로부터 유드까지, 비블리안더와 펠리칸

‘종교개혁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어 본문으로부터 라틴어로의 번역의 선구자는 츠빙글리이다. 그는 1525년 4월 23일 취리히의 그로스뮌스터에서 시편에 대한 자신의 설교집을 출간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시편을 직접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본은 인쇄되지는 않았고 단지 편집만 되었다. 이때 시편은 예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목상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1532년 유드(Leo Jud)는 츠빙글리의 히브리어로부터 라틴어로의 시편 번역을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짧은 히브리어 주해까지 달려 있었다. 이 라틴어 번역에서 츠빙글리가 추구하였던 것은 그때 당시의 불가타와 같은 높은 라틴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색채는 제거되고 지나치게 복잡한 표현들은 단순화되었다. 그는 종종 자유롭게 번역하였다. 이것은 마치 츠빙글리가 ‘verba’에 대해서 ‘mens autoris’를 작성한 것과도 같았다.

1539년 구약학자 펠리칸(Konrad Pelikan)에 의해서 완전한 라틴어 성경이 취리히에서 출간되는데, 신약은 에라스무스의 번역을, 그리고 구약은 세바스찬 뮌스터(Sebastian Münster)의 번역을 받아들였다. 불링거(Heinrich Bullinger)가 서언을 썼다. 그러나 이 성경은 충분히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4년 후인 1543년 *Biblia sacrosancta*가 펠리칸(Konrad Pelikan)에 의해서 출간되는데(그 후 1544년, 1550년에 후속 판), 구약 파트는 유드(Leo Jud), 비블리안더(Theodor Bibliander), 펠리칸(Konrad Pelikan)이 번역했다. 시편 1~102편은 유드(Leo Jud)가, 나머지 42편은 비블리안더(Bibliander)가 번역하였고, 여백에는 짹짹하게 이문들을 적어 넣었다.

이와 같은 작업은 특별히 비블리안더와 펠리칸이 *Schola Tigurina*에서 구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루어졌고, 인쇄업자였던 프로샤우어(Froschauer)의 활약도 두드러졌는데, 그는 많은 출판물들을 발간하였다. 그중에는 성경, 특히 구약성경을 위한 해석학 책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성경번역을 위한 보조자료들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에서는 가능한 것과 의미 있는 것들을 아직도 시험해 보는 차원이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드와 그의 동료들이 츠빙글리의 번역을 멀리했다는 것이다. 유드는 최대한 히브리어의 언어적 색채를 멀리하려 하였고, 동시에 히브리어 본문에 가능한 가까이 가려고 하였다. 이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물이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과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원어로 된 본문이 여러 가지 다른 이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흡사

한 꼴이 되었다. 파리 출신의 인쇄업자 로베르 에띠엔느는 1550년 제네바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일하다가, 1545년 파리로 돌아와서 이 취리히 판 라틴어 성경을 출간하고, 이듬해인 1546년에는 유드와 비블리안더의 시편 번역을 출간한다. 그는 방대한 주제 표기들을 위해서 Vatable의 주제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그는 이전에도 사용한 바 있었다. 1545년에 만들어진 이 스텔파누스 성경의 한 판본이 ‘깔뱅도서관’의 가녹지(Ganoczy)가 정리한 목록표에 들어 있다(제50호). 그녀는 이 번역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단지 “Biblia cum annotationibus Vatabli”라고만 소개하였다.

2) 스트라스부르크 : 히브리어 문법과 마틴 부처의 시편 주석서

깔뱅에게 있어서 두 번째 라인이 더욱 중요하다. 깔뱅의 바젤에서의 삶과 또한 그와 이어지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삶이 그것이다. 확실한 증거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깔뱅은 그곳에서, 특별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자신의 히브리어 실력을 현저히 향상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Hebraica veritas*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가 그때 당시 오늘날에도 훌륭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볼프강 카피토(Wolfgang Capito)의 탁월한 히브리어 교재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제네바의 가녹지가 정리한 자료는 베르미글리(Vermiglis)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물론 당시에는 이외에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었다. 칼빈이 마르틴 부처를 당시에 최고의 히브리어 학자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기록에도 나와 있다.

아무튼 깔뱅은 1557년에 출간한 자신의 시편 주석서의 서문에서 모범적인 주석가로서 부처를 언급하는데, 부처의 주석서는 탁월한 전문 지식으로 당연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18년 전의 로마서 주석서 서문과는 달리 그는 이와 같은 것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와 같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었다. 그는 1550년 출간된 *Wolfgang Musculus*의 방대한 시편 주석서도 언급하는데, 이때는 아마도 자신의 작업이 거의 끝났을 때쯤으로 보인다.

제네바 도서관에 소장된 1554년 판 부처의 주석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시편 주석서의 방대한 서문에서 부처는 자신의 주석의 근거들과 기본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거기서 히브리어에 관한 한 아브라함 에스라(Abraham Ibn Ezra)와 데이빗 김치(David Kimchi)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들은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본문을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고 있지만, 그들은 시편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나라, 믿음을 통한 의와 같은 기독교 주제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성경의 다른 부분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명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다른 유대교 학자들의 일반적인 용례를 훨씬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해설하는 ‘성경해석 원칙’은 성경에 대한 이해 및 히브리어 단어와 표현들을 번역하면서 사용되었다.

3) 파리에서 제네바로 : Robertus Stephanus

이제 세 번째 라인을 언급하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 라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세 번째 라인은 바로 로베르트 에띠엔느(Robert Estiennes)이다. 이 파리 출신의 인쇄업자는 외국어 본문, 특히 헬라어와 히브리어 본문에 집중하였고 국왕의 특권을 하사 받기도 하였는데, 그는 개신교에 호의적인 인문주의자로서 점차 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가 출판한 성경은 소르본(Sorbonne)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특별히 1545년 판에 기입한 성경해석 문구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로 피신하기로 결심했다. 1546년에는 그가 출판한 성경, 즉 취리히 본문을 담고 있는 성경은 금지되었고, 그는 이단으로, 그리고 깔뱅주의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프랑스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성경의 특징은—잘 알려진 절 표기 외에도—단이 여러 개가 있고, 아래에는 해설난까지 있었다.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불가타가 있고, 바깥쪽에는 큰 글씨로 ‘Tralatio nova’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1545년과 1546년에 스테파누스는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취리히 본문을 넘겨받았고, 유드의 “nova” 본문과 함께 성경을 출간한다. 1546년에는 시편의 독립된 판을 출간한다. 깔뱅의 시편 주석서의 출간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556, 1557년에 에띠엔느는 파그니누스(Pagninus)의 번역인 라틴어 “nova” 본문을 담은 세 권으로 된 성경을 출간한다. 에띠엔느는 구약성경에 대한 라틴어 번역 중에서 파그니누스의 번역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유드, 비블리안더, 펠리칸의 번역으로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그가 파리에서 출간한 성경이 이미 금지되었기 때문이었고, 이 번역은 당시에 활동 중이었던 왈도파와 개신교 투쟁가들과 함께하였다. 곧 외적으로 대비되는 면모로서 “Biblia utriusque Testamenti”는 세 권으로 1556, 1557년에 출간되었는데, 이 성경은 베자의 신약번역문을 담고 있었다. 특별히 구약본문에는 히브리어 표현의 문법적 특징과 다른 번역 가능성 등을 담은 참조난이 첨가되었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차원에까지 이르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에띠엔느의 서문은 자신이 작업한 본문의 유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신이 작업한 부분 중에서 불분명한 많은 부분들은 그대로 남기는 방식을 취했다. 이와 같은 에띠엔느의 두 개의 판본 이후 파그니누스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 판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당시에 불어권에서 가장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로 알려진 François Vatable과 그의 제자 르페브레 데 타플(Lefévre d'Estaples)에 의해서 수행된 강의들을 듣고 기록한 사람으로부터 에띠엔느가 입수한 내용들이었다. 이와 같은 소개와 더 지속된 언어학적인 설명들을 통해 볼 때, 그 참조난은 어느 특정 저자에게로 귀속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러나 그 참조난의 내용들이 에띠엔느에게로 귀속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에 의해서 강하게 여과되었다. 동시에 이 판본의 시편은 본문을 각각 여덟 개의 단으로 구성하여 출간하였다. 이 참조난은 다른 ‘학자들’의 다른 번역 가능성들과 문법적인 해설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선택과 수집이라는 작업은 에띠엔느의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서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띠엔느가 이 방면에서 아주 전문적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판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훌륭하게 평가 받고 있는 그의 구약성경에 관한 인명, 민족, 지명 색인이 설명과 함께 첨가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김치(Kimchi)의 Kozer-Ozar Ieshon ha-kodesh에 대한 파그니누스의 라틴어 번역에 대한 1548년의 그의 판본은 다음과 같은 라틴어 제목이 달려 있다. Linguae Sanctae sive Lexicon hebraicum…… ex R. David Kimchi “Sepher ha-sharashim”(뿌리들의 책). 이것은 방대한 히브리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은 단어와 그 의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성경의 어디에 등장하는지, 문법적인 설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동사의 경우 그 동사의 동사변화어근, 시제 등까지도 첨가되어 있다.

3. 깔뱅의 번역작업의 기본원칙들

우리는 깔뱅의 번역작업의 두 번째 부분에 도달했다. 우리의 작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들은 이미 우리의 책상에 놓여 있다. 깔뱅은 1557년에 출간한 시편 주석서의 서문에서, 이 주석서는 이에 상응하는 주석적인 강의들로부터 출발하여 성장했다고 말한다. 이 점은 차츰 분명해진다. 이것은 그가 개별적인 히브리어 단어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자기 자신의 번역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를 통해 밝혀진다.

이와 같은 작업에서 그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불분명해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과 구절들이다. ‘varie exponitur interpres’와 ‘varie torqueant interpres’라는 표현은 내가 세어 본 바로는 시편 주석서에서 31번이나 등장한다.

그가 논의했던 사람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그들은 철저히 배경 뒤로 숨겨진다. 우리는 깔뱅이 번역과 주석작업에 있어서 어떤 토론의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 토론의 장은 단지 암시적으로만 배어 있다. 그의 주석서와 번역이 강의들로부터 출발하여 성장했다는 언급을 전제한다면 더욱 그런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깔뱅은 아주 강하게 그러한 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주석서와 참조설명들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그의 번역을 위해 최근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단지 언급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깔뱅은 부처의 주석서들과 무스쿨루스(Musculus)의 주석서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무스쿨루스의 주석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소개하고, 저자와 출처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은 본문에 대한 이해나 번역을 위해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

깔뱅이 시편의 라틴어 번역본에서 그가 라틴어를 가장 섬세한 누앙스에 이르기까지 통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점이 또 있다. 그는 시편 주석서에서 우아하고 시적인 라틴어를 구사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에 해당하는 라틴어 표현의 화법, 시제, 동사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히브리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이란 *hebraica veritas*에서 나온 본문과 그 본문에 대한 작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라틴어 번역을 ‘거친, 야만적인’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그렇게 놔두었는데, 그 이유

는 그렇게 되어야만 히브리어 본문이 보다 분명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 깔뱅은 자신의 번역작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했나?

깔뱅은 어떤 한 표현이 여러 가지 번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번역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모두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번역을 선택해야 할 때, 그는 별다른 이유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첨가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너무 방대하지는 않은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중요시했던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1) 단어의 의미

깔뱅은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여기서 그는 De Clementia 주석서에서 수행했던 것처럼, 한 인문주의자로서의 작업을 성경본문들에도 적용하고 있다. 주석서에서 그는 우선 단어의 기본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그 단어의 구성물, 화법, 동사 변화 및 명사변화 등을 다룬다.

깔뱅은 종종 한 단어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들을 가지고 시작하곤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부처와 무스콜루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편 8 : 2의 ‘aschär’가 관계사로, 혹은 설명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면, 8 : 4의 ‘ki’는 ‘왜냐하면’(sed), 혹은 ‘왜나하면’(quia)을 의미하는가? 시편 11 : 18의 ‘araz’ 동사가 타동사, 혹은 자동사로 사용되었다면, 11 : 17의 ‘kanan’ 동사는 ‘이끌다’(dirigere), 혹은 ‘강하게 하다’(stabilire)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시편 17 : 3의 경우 깔뱅은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라틴어의 완료로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를 미래의 의미로 번역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접속법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등이다.

(2) 히브리어 문법가들

한 단어의 의미, 문법적 형태, 어근 등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 문법가들’이다. 깔뱅은 이들 랍비학자들을 거의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특히 김치(Kimchi)에 대해서 그렇다. 그들이 어떤 번역에 있어서 일치를 보이면 깔뱅은 이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그 근거논리를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깔뱅이 이들을 비판하는 경우는 이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을 때인데, 깔뱅은 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소개도 주석작업에서나 등장하지 번역의 경우 거의 소개하지 않는다.

다른 유대학자들처럼 깔뱅도 단어의 어원학적 차원으로 돌아온다. 한 히브리어 표현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어근이나 어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법적 형태와 관련해서 깔뱅은 아주 꼼꼼하고 도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시제와 관련해서 그렇다. 그는 히브리어의 시제가 라틴어의 시제와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장은 문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완료는 라틴어의 과거, 미완료는 라틴어의 현재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제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도 그는 그렇게 했다. 이것은 그가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했고 사용된 시제의 용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그는 습득한 문법지식을 좀 고지식하게 적용하려는 유연하지 못한 면모를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3) 성경 내에서의 단어의 사용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 등장하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는 확증되거나 그 의미의 영역이 확장된다. 이것에 관한 원칙은 부처

가 자신의 시편 주석서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성경은 스스로 주석한다는 원칙의 언어학적 측면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4) 본문의 정황

깔뱅 번역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본문의 정황이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깔뱅은 자신의 번역을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정황을 언급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어떤 기도하는 자의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정황을 언급한다든지, 시편 전체를 꿰뚫는 어떤 사상을 언급하면서, 그는 자신의 번역을 정당화한다. 어떤 표현이 비록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을지라도, 정황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 깔뱅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이 점은 불가타와 파그니누스(Pagninus)와 다른 점이다. 반대말인 ‘torquere’ / coactus – ‘무리가 없는’은 도처에서 마주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깔뱅의 번역작업의 특징들이 그가 주석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번역가들로부터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그룹을 조심스럽게 깔뱅의 ‘proprium’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hebraica veritas*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노력을 보여 준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우리는 두 가지 예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 예들은 임의로 선택된 것이다.

2) 두 가지 예

(1) 시편 29 : 1

시편 29 : 1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요구되어지는 ‘bne elim’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전체 절은 다음과 같다 : “……”. 불가타(칠십인 역)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adferre Domino filii Dei, adferre Domino filios arietum.” 이것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너희 신의 아들들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너희 숫양의 아들들아.”

깔뱅은 우선 “숫양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거부한다. 칠십인 역의 그 표현은 잘못 혼동되었음에 틀림없다. 유대학자들은 그 단어의 뜻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일치했다. 그들은 ‘genuinus sensus’를 떠나서 환상의 나래를 꾸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별들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천사,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족장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깔뱅은 저자의 사상에 근접해 있는 단순한 의미를 선택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호출되고 있는 정황으로 보건대 그들은 기고만장한 하나님의 적들, 즉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깔뱅의 해석에 따르면, 다윗은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시편 29편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깔뱅은 최대한 히브리어 본문에 가까이 머무르려고 하였다. 그리고 분명히 그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닌 라틴어 표현 ‘filii fortium’을 받아들인다. “Afferte Iehova, filii fortium, afferte Iehovae gloriam eius.” 그는 히브리어 ‘elim’이 ‘신’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신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깔뱅의 이해를 특징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이해가 그의 번역의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본문은 천상의 신적인 존재들이나 천사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신적인, 혹은 반신적인 권위를 가지려는 통치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깔뱅은 이 단어의 의미와 그를 통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는 부처의 주석에서 이러한 것들을 얻었다. 부처는 자음이 바뀌어진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들을 소개한 바 있다(bne elim / bne ajalim). …… 이 표현을 ‘별들’로 번역한 것은 아브라함 에스라

(Abraham Ibn Ezra)이다. 부처는 주장하기를 ‘filii elohim’은 하나님 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자들, 즉 천사나 죽장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그는 주장하기를, 여기서는 특별히 지상의 통치자들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깔뱅은 이것을 정확하게 따라 한다. 그는 부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깔뱅은 히브리어의 의미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다. 부처는 이미 보다 많은 의미가 함축되도록 하였다. “Date Autophyi, qui virtute praestantis, date Autophyi decus et potentiae laudem.” 한편 취리히 성경과 루터 성경 개정판은 히브리어 의미와 독자들의 종교적 감정 사이에서 기막힌 해결책을 담고 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너희 천상적인 존재들아. 주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려라.”

(2) 시편 55 : 23

시편 55 : 23은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다 : “……”. 취리히 성경과 루터 성경 개정판은 다음과 같다.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불가타(칠십인 역)는 다음과 같다. “iacta super dominum curam tuam tuam.”

이 구절에 대해서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구절은 경건한 분위기를 담고 있고, 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구절들과 잘 상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 관한 한 근거가 없다. 히브리어 단어 ‘jahav’는 ‘주다’라는 뜻이다. ‘짐’, ‘걱정’, ‘curam tuam’, ‘onus tuum’ 등의 표현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히브리어 학자들의 대다수가 ‘onus’를 ‘짐’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깔뱅은 ‘jahav’ 동사가 짐을 맡긴다는 뜻으로 ‘onerare’로 성경에서 사용되었거나, ‘jahav’의 명사형이 ‘짐’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깔뱅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Proiice super Jehova tuum dare.” 그는 히브리어 문법규칙에 따르면 이 표현은 ‘tuum dare donum’, 즉 ‘너는 선물

을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구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깔뱅은 이 표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미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데, 특히 문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은 수행되어야 하고, 시편 55편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깔뱅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법가들이 다른 의미를 생각해 내었던 것 같다고 추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깔뱅이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중에서 ‘tuum dare’를 수동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즉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선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기발한’ 의미를 형성해 낼 수 있다. 즉, 우리들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요구되어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신의 섭리에 내어 맡기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 구절을 담고 있는 문맥과도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가(하나님이) 너를 보살피시리라.” 깔뱅은 히브리어의 의미에 보다 가까이 간 번역을 제시한다.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또는 풀밭으로 인도하시리라.) ; et ipse te pascet.” 깔뱅은 문법적인 통찰력이 처음에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전통적인 해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인도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과 같은 경우 ‘걱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가 보기에도 이러한 설명은 아주 ‘유연’하다. 유연하다라는 표현은 깔뱅이 자주 사용했었는데, 이 단어는 깔뱅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문법은 그에게 우아한 번역을 할 생각을 버리도록 한 것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깔뱅은 아주 짧은 단락에서 이렇게 언급한 지식들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것은 1548년에 에띠엔느가 출간한 파그니누스의 *Thesaurus*

*Linguae sanctae*에서 얻었다. 그곳에서 ‘jahav’라는 동사는 ‘주다’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었고 시편 55:23이 인용되었다. 파그니누스는 데 이빗 킴치가 번역한 것을 동의한다고 하였고, 이것을 깔뱅은 자신의 주석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Proice super dominum curam tuam.” 이것은 기존의 랍비 주석가들(솔로몬, 아브라함, 모세, 탈굼)이 ‘onus’를 짐이라고 번역한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깔뱅은 그들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3) 깔뱅 번역의 신학적 차원

지금까지 나는 문법적인 번역작업을 다루었는데, 이것은 어떤 문맥상의 ‘의미’를 형성해 내는 작업이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는데, 왜냐하면 한 본문에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 없이 번역이란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깔뱅의 번역에 있어서 신학적 차원도 있는가?

깔뱅 번역에 있어서 신학적 차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시편 29:1의 ‘bne elohim’을 ‘신의 아들들’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에 속할지도 모른다. 이 외에 다른 예들도 있다.

(1) 시편 119:112

시편 119:112을 불가타(칠십인 역)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in-clinavi cor meum ad faciendas iustificationes in aeternum propter retributionem.” 즉, “나는 상급을 얻기 위해 영원히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결심하였습니다.” 히브리어 : ‘I^olam ekāf’.

우리는 깔뱅이 이 번역에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요 단어는 히브리어 ‘ekāf’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mercedes’, 혹은 ‘ad finem usque’로 번역할 수 있다. 깔뱅은 ‘ad finem usque’를 선택하였다. 바로 앞에 ‘영원히’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깔뱅은 바로 이러한 의미

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맥락의 다른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 한다. “Dictio ‘ekāf’ exegetice meo iudicio addita est ad ‘I^olam.’” 그래서 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Inclinavi cor meum ad facienda edicta tua in perpetuum in finem.” 이것은 우아한 라틴어는 아니지만 깔뱅이 받아들였고, 이것은 에띠엔느 성경 참조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유드와 파그니누스와도 동일한 것이며, 오늘날의 번역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2) 지평

신학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깔뱅이 자신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문주의자들과 유대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능하게 했던 전체적인 지평에 대한 언급들이다. 깔뱅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 랍비학자들이든, 카톨릭 - 유대학자들이든, 개신교 - 인문주의자들이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인 히브리어 성경으로부터 살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깔뱅은 무시간적인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법, 단어의 의미 영역, 생동감, 역사적이고 상황적인 사용 등을 고려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근세 초기의 역사이해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깔뱅이 그의 시편 주석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석학적 지평은 하나의 성경이 하나님의 선택, 계약, 돌보심을 증거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편이 제공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이고 성례전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모든 시대를 파고드는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 그리고 언어는 다양한 형태,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는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확신을 통해 깔뱅은 *hebraica veritas*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각

각의 본문들을 ‘실제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지평을 열었다. 이것은 당시의 신학적인 근거들과 본문의 정황조차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은 각 단어들의 기독교적인, 종말론적인 ‘초월적인 해석’이 번역의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수백 년간 이루어졌었다. 깔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표현들을 매끄러운 해결책이 아닌 상태로 놔두었다. 그는 이렇게 놔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 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4. 요 약

깔뱅의 번역은 그 본문이 생성된 다양한 정황을 고려했다. 그의 시편번역은 인문주의적, 개신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는데, 원어의 의미에 관한 한 동시대의 많은 다른 학자들의 의견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하였다.

깔뱅의 번역을 그가 참조하였던 다른 번역들(불가타, 유드, 파그니누스, 부처)과 비교하여 볼 때, 그는 히브리어 본문으로부터 직접 번역한 독창적인 번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것은 주석작업에서 중요한 자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깔뱅은 자신의 히브리어 실력과 자신이 사용했던 훌륭한 참고자료 등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판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는 특별히 부처와 에띠엔느(Pagninus [Kimchi] ; Vatable)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였다.

깔뱅의 번역이 당시의 다른 번역들보다 “더 좋았는가?”라는 질문은 답변하기 어렵다.

번역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의 경우 깔뱅은 이에 상응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고 가끔씩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깔뱅 번역의 독창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하려 했다는 점이다(‘perspicua brevitas’). 그는 번역문과 이에 따른 주석을 가능성에 따라 배열하였고,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본문의 정황을 소개하였는데, 그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언어적이고 문법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였다. 본문의 정황에 가까운 번역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

깔뱅은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 그는 번역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가능성, 즉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석서에서 결코 그것 하나만을 등장시키지 않는다. ‘후기’ 깔뱅 역시도 자신의 번역문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써 겸손하게 내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토론하기를 원했다.

논 찬

우리는 본 글을 두 가지로 구성해 보았다. 앞에서는 주어진 논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개괄을 하고, 뒤에는 주어진 논문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번역하여 싣는 작업이다. 독일어로 된 오피츠(Dr. Peter Opitz, Zürich) 박사의 논문의 원제목은 “Calvin als Bibelübersetzer am Beispiel seines Psalmenkommentars”(시편 주석서를 통해 본 성경번역자로서의 깔뱅)이다. 오피츠가 깔뱅을 성경번역자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깔뱅이 성경을 많이 번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깔뱅이 성경주석작업 속에서 성경번역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석작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오피츠는 특별히 깔뱅의 시편주석에 자신의 연구를 한정시킨다. 종교개혁이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 원어성경으로부터 자국어로의 번역뿐만 아니라 당시의 학문적인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다.

깔뱅의 주석작업에서 히브리어 성경 번역작업과 관련된 세 가지 줄기가 있었다. 첫째는 취리히를 중심한 츠빙글리에서 유드, 비블리안더와 펠리칸을 연결하는 줄기와 스트라스부르크를 중심한 마르틴 부처를 연결하는 선과 파리와 주네브를 중심한 스테파누스를 연결하는 선이다.

깔뱅은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는 원칙(*hebraica veritas*)을 가지고, 단어의 의미의 분석, 히브리어 문법가들에 대한 존중, 성경 내에서의 단어 사용 문제, 본문의 정황 등을 중심으로 번역과 주석작업을 진행시켰다. 오피츠는 깔뱅이 실제로 주석작업을 진행한 과정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조목조목 제시하였다. 깔뱅은 주석과 번역 과정에서 문법적이고도 역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신학적 차원도 매우 중요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피츠는 깔뱅의 성경주석과 번역에 대한 지평과 요약으로 이 논문을 마친다.

신학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깔뱅이 자신과 동시에 살았던 인문주의자들과 유대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능하게 했던 전체적인 지평에 대한 언급들이다. 깔뱅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 랍비학자들이든, 가톨릭·유대학자들이든, 개신교·인문주의자들이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인 히브리어 성경으로부터 살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깔뱅은 무시간적인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법, 단어의 의미 영역, 생동감, 역사적이고 상황적인 사용 등을 고려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근세 초기의 역사이해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깔뱅이 그의 시편 주석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석학적 지평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선택, 계약, 돌보심을 증거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편이 제공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이고 성례전적인 차원을 넘어서 것이다. 모든 시대를 파고드는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 그리고 언어는 다양한 형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문학적 지식에 대한 확신을 통해 깔뱅은 *hebraica veritas*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각각의 본문들을 ‘실제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지평을 열었다. 이것은 당시의 신학적인 근거들과 본문의 정황 조차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은 각 단어들의 기독교적인, 종말론적인 ‘초월적인 해석’이 번역의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수백 년간 이루어졌다. 깔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표현들을 매끄러운 해결책이 아닌 상태로 놔두었다. 그는 이렇게 놔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 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첫째, 깔뱅의 번역은 그 본문이 생성된 다양한 정황을 고려했다. 그의 시편 번역은 인문주의적·개신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는데, 원어의 의미에 관한 한 동시대의 많은 다른 학자들의 의견에 최대

한 가까이 가려고 하였다.

둘째, 깔뱅의 번역을 그가 참조하였던 다른 번역들(불가타, 유드, 파그니누스, 부처)과 비교하여 볼 때, 그는 히브리어 본문으로부터 직접 번역한 독창적인 번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것은 주석작업에서 중요한 자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 깔뱅은 자신의 히브리어 실력과 자신이 사용했던 훌륭한 참고 자료 등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는 특별히 부처와 에띠엔느(Pagninus [Kimchi] ; Vatable)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였다.

넷째, 깔뱅의 번역이 당시의 다른 번역들보다 “더 좋았는가?”라는 질문은 답변하기 어렵다.

다섯째, 번역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인 경우 깔뱅은 이에 상응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고 가끔씩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섯째, 깔뱅 번역의 독창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하려 했다는 점이다(*perspicua brevitas*). 그는 번역문과 이에 따른 주석을 가능성에 따라 배열하였고,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본문의 정황을 소개하였는데, 그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언어적이고 문법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였다. 본문의 정황에 가까운 번역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

일곱째, 깔뱅은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 그는 번역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가능성, 즉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석서에서 결코 그것 하나만을 등장시키지 않는다. ‘후기’ 깔뱅 역시도 자신의 번역문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겸손하게 내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토론하기를 원했다.